

그리스도의 얼굴

고 주 영 (Kobb James)

(미 장로교 한국 선교회 선교사)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한 가지 재고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이용하는 일이다.

이제 제법 여러 교회에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또한 기독교 서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 길거리에서도 이런 그림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 속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안에 이런 그림을 걸어 두고 보기도 한다. “왜 이런 그림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듣게 된다.

① 어떤 분들은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 생각이 난다.”고 한다.

② 다른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

③ 또 다른 분들은 남이 그 그림을 볼 때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 수 있다.”고 한다.

④ 또한 “전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우리는 일단 이러한 이유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이용하는 것을 정

1) “예수님의 그림”이나 “그리스도의 그

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기억되고 싶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들로 나타내지기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논쟁이 아니다. A.D. 4세기경 교회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J. M. Kik의 말을 빌리면 교회 역사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그림”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인용 부호를 쓰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의 정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지금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우신 상태에 계신데 역시 그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적당하게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되었는지 잘 알게 된다.

“교회 역사에 처음 4세기 동안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일이 없었다. 그동안 교회가 가장 놀랍게 성장했다.

..... (중략)

그 당시 교회가 이교도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초상”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이교도들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상이 최초로 나타났을 때 반대를 받았다. 당 시대의 유명한 교회 역사가(歷史家)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초상화를 한 장 얻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²⁾

A. D. 6세기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과 그 밖에 다른 성도들의 초상화가 많이 붙어났다. 그때 이러한 초상화를 반대하는 자들을 아이코노클라스트(ICONOCLAST)라고 하였다. 헬라어로 “아이콘(ICON)”이라는 말은 그림이나 초상이라는 말이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인간성에 정당한 상징은 다만 성례식의 빵과 포도주 뿐”이라고 했다.³⁾

그러나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 2) J. Marcellus Kik, “예수님의 그림(Pictures of Christ)”이라는 전도용 팸플릿.
- 3) Kenneth Scott Latourette,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 (Harper & Row Publishers, 1975), p. 294.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인간성을 부인한다.”고 했다.

A. D. 753년에는 감독 회의에서 감독 330명이 모여 “예수님의 초상화”를 사용하는 문제를 비난해도 그런 초상화를 사용하는 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에 이 논쟁이 다시금 강력하게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의견이 있었다.

① 예배 드릴 때 초상화를 쓰면 괜찮다.

② 예배 드릴 때 초상화를 쓰면 안 되지만 교육·시간이나 장식용으로는 괜찮다.

③ 언제 어디서든지 초상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의견들을 각각 살펴보면 첫째는 로마 천주교, 둘째는 루터파, 셋째는 칼빈주의자였다.

“성경에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금하기 때문에 신교도들 중에 루터교인이나 개혁파 사람들은 다 함께 초상화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교육용으로는 장식용으로 초상화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으니까 루터는 그런 행동이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초상화를 계속해서 쓰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초상화를 쓰는 일을 통하여 그것이 많이 악용되니까 개혁주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모든 초상화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⁴⁾

- 4)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16세기 종교 개혁 운동들을 통하여 초상화에 대한 개혁주의 고백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대요리 문답 109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 제 2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 2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입니다. 삼위의 전부나 그 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이나 외적으로 대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97과 98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답: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과 비슷한 것을 금하십니다.

문: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성경 대신에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우상에 의해 배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살아 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서 배움을 받는 것을 원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초상화를 쓰는 것,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초상까지 칼빈주의가 역사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쓰는 서두에 열거한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고자 한다.

1.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난다.”

이 이유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특성(아뭇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J. Marcellus Kik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생기셨는지 안 나온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키가 크거나 작거나 피부가 희거나 검거나 머리가 연하거나 진하거나 눈이 파랗거나 밤색이거나 그런 것을 알려 주시지 않은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베드로나 요한도 그런 일을 금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았겠는가? 이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물론 이들이나 다른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육체적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7), p. 303.

으로 예수님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의 아들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설명을 다 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빠뜨리셨는데 왜 놓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⁵⁾

2.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을 기억한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강생과 속죄를 기억하도록 하는 성경적 방법(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성례식을 집행하는 것)을 이것에 관해 칼빈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눈 앞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묘사한다(갈 3:1 이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십자가 1,000 개보다 이 한 가지 사실(복음 전파와 성례: 역자 주)을 통하여 더 많이 배웠겠다. 아마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이나 은에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집중할 것이다.”⁶⁾

5) 지금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육체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하다. J. Marcellus Kik, *op.cit.*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3. “남들이 그 그림을 볼 때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이며(마 5:13-16),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는 실과(實果)이며(마 12:33),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요1서 3:10).

4. “그런 그림이 전도하는 그림을 제공한다.”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 그림이 진실로 예수님의 모양이 아닌데 그 그림을 사용하므로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사람(그림에 나타난 가상적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오해한다면 되겠는가? 뿐만 아니라(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그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불신자들에게 주어서야 되겠는가?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다운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불신자들은 우

1960), p. 107.



리가 분명히 크리스찬인 줄로 알게 되므로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의 그림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 2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런 초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심과 예식

에서도 그러한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완전한 여호와이시며, 완전한 사람되시며, 지금도 지구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초상을 다 지워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 서평 ▷

『신약 정경론』

A.B. du Toit 지음
권 성 수 옮김

엠마오/신국판 양장/338쪽/4,500 원

이 승 미 (고신대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 신학 대학원 권성수 교수의 노고로 번역된 「신약 정경론」은, 본래 「*Handleiding by die Nuwe Testament*」(Band I)의 영문 번역판인 「GUIDE TO THE NEW TESTAMENT I」(1979, N. G. Kerkboekhandel: Pretoria) 의 제 2 부(pp. 77-271)인, A. B. du Toit의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에 대한 한글 번역이다.

듀 토잇 박사는, University of Pretoria의 신약학 교수요, 남아 신약 협회(NTWSA) 총무와 위의 「신약 입문」 시리즈(1-6 권) 출판의 편집장으로, 신약학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해 온,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건전한 보수 학자이다.

듀 토잇 박사는 본서에서 많은 문헌을 근거로 하여, 신약 정경을 주로 두 근본 국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 첫째는 정경의 근본적, '신학적' 노선이며, 둘째는 정경 발전의 역사적 노선이다. 제 3 장(pp. 37-169)에서는 전자의 내용을, 제 4 장(pp. 171-338)에서는 후자의 것을 취급하고 있다. 제 1 장과 제 2 장은, 사실 본서의 본론에 대한 서론적인 간단한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 정경론과의 관계와, 신약 정경론의 중요성을 제 1 장(pp. 9-18)에서, 그리고 정경(canon)에 대한 주요 개념들과 그 역사 개관, '정경적'과 '영감된'이라는 용어들 사